

최근 수입식물의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선충종류 및 조치결과

전재용, 김중보

국립식물검역소 영남지소 조사과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및 먹거리에 대한 수요의 다변화로 외국으로부터 식물 및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병해충, 선충의 유입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식물검역에서 선충검사가 이루어지는 주요 품목은 묘목류, 구근류, 화분과 목초종자, 서류 및 근채류이다. 최근 수입식물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선충검출실적을 보면 2000년 16종 105건, 2001년 20종 395건, 2002년 58종 573종, 2003년 52종 349건, 2004년 44종 566건이었으며, 2005년 4월 30일 현재 25종 196건 검출되었으며, 이중 국내 미기록 선충의 검출로 인한 폐기건수 및 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검출 선충은 과별로 Heteroderidae(씨스트선충과), Pratylenchidae(뿌리썩이선충과), Hoplolaimidae(나선선충과), Aphelenchoididae(잎선충과), Anguinidae(씨알선충과)이었으며, 주요 속별로는 *Meloidogyne*, *Pratylenchus*, *Aphelenchoides*, *Ditylenchus*, *Helicotylenchus*, *Scutellonema* 속이었고, 종별로는 *Meloidogyne* 속의 선충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2005년 실례로 미국에서 수입한 감자에서 *M. chitwoodi*(콜롬비아뿌리혹선충)가 검출되어 51건 1,300여톤의 감자를 폐기·반송시킨 경우도 있었다.

선충이 주로 검출되는 품목은 묘목류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며, 근채류와 구근류 그리고 화분과 목초종자의 순으로 선충이 검출되었다.

선충조사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분류가 까다로우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간편한 조사방법 개발 및 담당자의 분류능력향상을 위한 선충분류 동정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늘어나는 검역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